

## Economy brief

2020-03-23

## [HI Economy]

## 경험하지 못한 경제 지표(2): 글로벌 경제 서든 스톱

박상현(2122-9196)  
shpark@hi-ib.com

이상(2122-9210)  
sang.lee@hi-ib.com

## 미 주간실업청구건수 급증이 미국 등 글로벌 경제의 서든 스톱을 시사

지난주 미국 주간 실업청구건수가 28.1 만건으로 전주대비 약 7 만건이 급증했다. 문제는 금주 발표 예정인(3 월 26 일) 주간실업청구건수로 150 만건이라는 충격적 지표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주간실업청구건수는 지난 82 년 10 월 69.5 만건이 통계발표(67 년 1 월) 이후 최고치이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 들은 미국 등 주요국 경제의 서든 스톱을 전망하고 있다. 서든 스톱은 예상치 못한 외국 자본유입의 중단에 이은 대규모 외자유출의 발생으로 외화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하지만 이번 경우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마비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2 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전기비연율 -24%까지 추락하면서 20 년 연간 성장률 역시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47 년 2 분기 이후 분기 성장률기준으로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58 년 1 분기 -10%를 2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다. 유럽 경제 역시 서든 스톱이 예상되고 있다. JP 모건은 1~2 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을 각각 전기비 연율 -15%와 -22%를 전망했다. 상반기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실상 2 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모두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상반기 진정될 수 있다면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과 지연된 소비 등으로 성장률이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반등 역시 정책이 아닌 코로나 19 확산세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선진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기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단기적으로 경제지표보다 변동성 지표와 달러 유동성 경색 진정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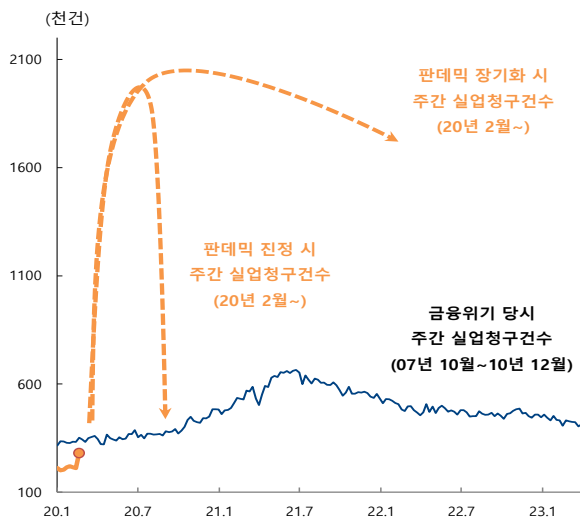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반기 중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제지표보다 변동성이 진정될지를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VIX) 지수는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상회하는 등 극심한 불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 월 16 일 변동성지수가 82.69 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4 영업일째 하락했다는 점이다. 물론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주 변동성 지수 둔화 흐름은 주식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신호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둔화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초강세로 대변되는 달러 유동성 경색 완화 여부도 금융시장 안정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문이다. 미 연준의 각종 유동성 공급 조치와 함께 한국, 멕시코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이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이 충분히 완화될 기미는 아직 없다. 3 개월 달러 리보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이 단적으로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 지속을 보여주고 있다. 충격적인 경제상황을

맞이하면서 현금 보유, 특히 달러화 보유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글로벌 경제가 충격적인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누차 언급되듯이 코로나 19 확산세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의 강력한 봉쇄 정책이 수주내 효과를 볼 수 있을지와 이로 인해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이 완화될지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림1. 미국 내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주간실업청구건수가 200 만건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관건은 이후 추세임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JP 모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 지난 50 년래 최대 분기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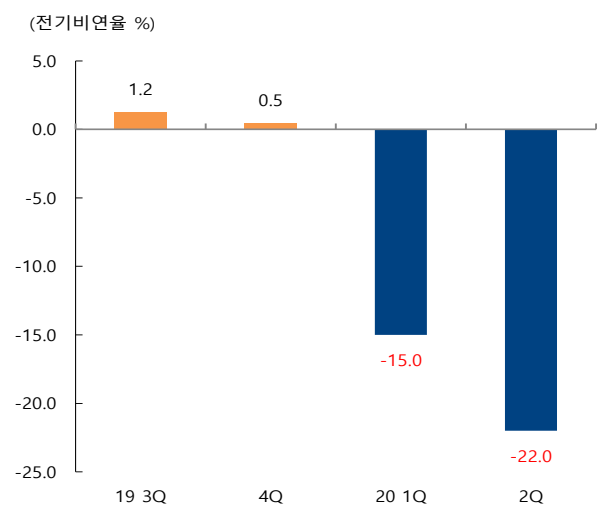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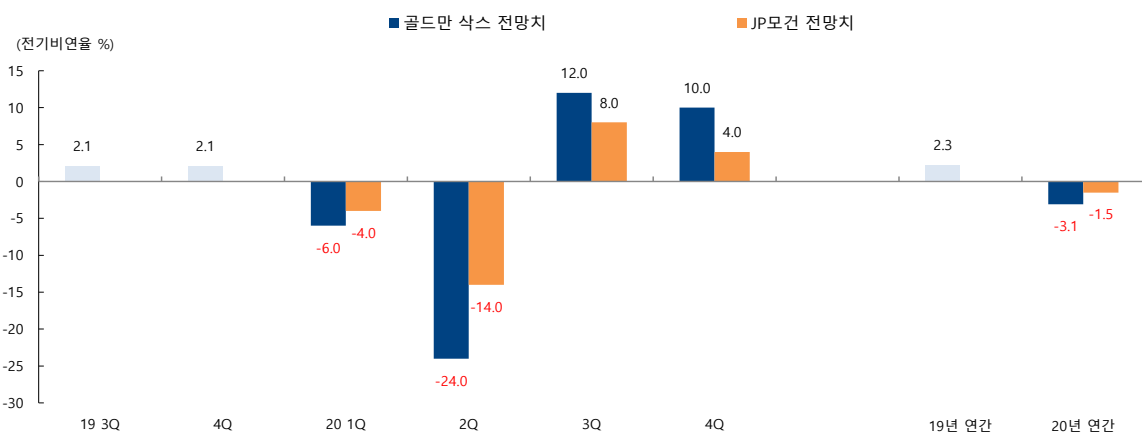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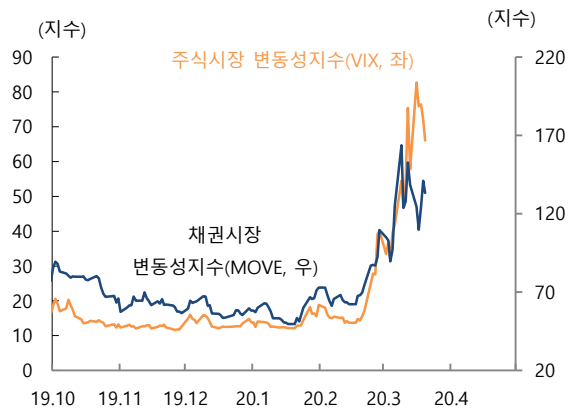


그림3.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 들은 코로나 19 발 서든 스톱으로 2 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0% 이상 추락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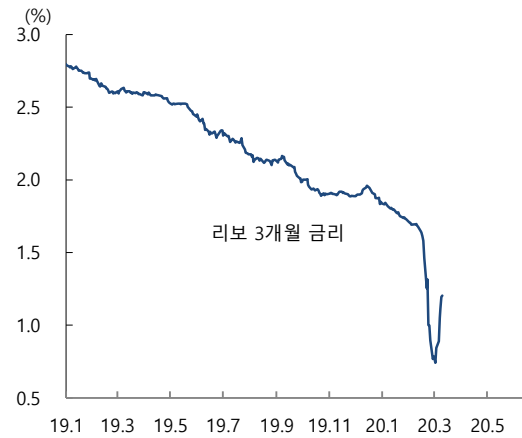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골드만삭스, JP 모건,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상회했던 주가 변동성 지수가  
그나마 다소 둔화됨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미 연준의 각종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러  
리보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이상)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